



■ 채초지의 시비량

- 비료량은 ha당 질소 210kg, 인산 150kg, 칼리 180kg이다.
- 오래전에 조성한 초지는 토양에 인산 함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산질 비료를 다소 적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■ 예취 적기

- 첫 번째 예취는 화본과 목초는 수잉기부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이다.
- 두과목초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가 좋은데 이때 목초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조섬유 함량 25%, 소화율 71% 내외가 된다.
- 두 번째 이후에는 생육기간 중에 목초의 품질변화는 크게 없으므로 풀의 키가 30~50cm 내외일 때부터 베어 먹이는 것이 좋다.

■ 예취횟수

- 목초의 예취횟수는 연간 3~5회로 베는 횟수가 많으면 조단백질, 조지방의 함량은 높아지나 조섬유 함량과 건물 수량은 떨어진다.
- 화이트클로버를 혼파한 초지는 자주 베는 것은 클로버가 우점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.
- 일반적으로 혼파초지에서는 각 초종의 생육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 초종을 대상으로 예취횟수를 정한다.

■ 예취 높이

- 목초는 예취 높이에 따라서 수량과 재생이 달라진다.
- 키가 큰 풀은 높이 베어도 수량 손실이 적지만 키가 작은 풀은 많다.
- 상번초는 높게, 하번초는 약간 낮게 베는 것이 좋다.
- 우리나라 초지의 주 초종은 오차드그라스, 톨 페스큐 등이므로 예취 높이는 6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.

■ 마지막 예취 시기

- 월동 직전에 풀을 베면 뿌리나 그루터기의 저장양분이 적은 상태로 추위를 맞기 때문에 월동 중에 죽을 염려가 있다.
- 한지형 목초는 평균 기온이 5℃까지는 생장하므로 일평균 기온이 5℃되는 날로부터 약 30~40일 전에 마지막으로 예취하여 충분한 양분 축적기간을 두어야 한다.
- 마지막 예취 후 겨울이 춥지 않아 목초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는 월동을 좋게 하기 위하여 초장을 15~20cm 정도 남겨놓고 윗부분을 베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

조사료 현황 및
일반기술동계 사료작물
재배기술하계 사료작물
재배기술기타 사료작물
재배기술사일리지와
건조 제조초지조성 및
관리기술기축분뇨
이용기술농식품부
지원사업